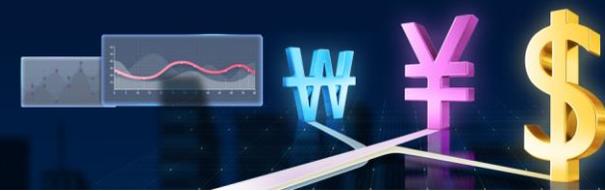


Eugene's FICC Update



유진투자증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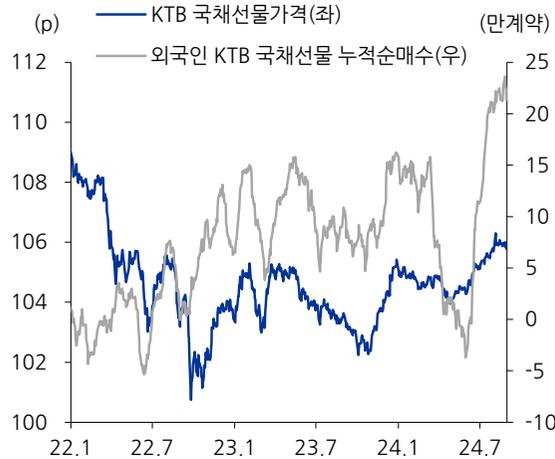
Fixed Income 김지나_02)368-6149_jnkim0526@eugenefn.com Economist 이정훈_02)368-6176_jhoonlee@eugenefn.com RA 유재혁_02)368-6177_dbwogur170@eugenefn.com

Fixed Income

(단위: %,bp, 톱)

	8/29일	1D	1W	YTD	
국내 채권	한국 국고채 3년물	2.939%	2.0	3.2	-21.5
	한국 국고채 10년물	3.075%	2.1	9.5	-10.8
	장단기금리차(10년-3년,bp)	13.6	13.5	7.3	2.9
	3년 국채 선물(KTB)	105.78	-11.0	-20.0	36
	10년 국채 선물(LKTB)	116.34	-21.0	-91.0	84
해외 채권	미국채 2년물	3.895%	2.8	-11.2	-35.5
	미국채 10년물	3.862%	2.6	0.8	-1.8
	장단기금리차(10년-2년,bp)	-3.4	-3.1	-15.4	-37.1
	독일국채 10년물	2.277%	1.9	3.3	27.3
	호주국채 10년물	3.954%	2.2	6.7	-0.7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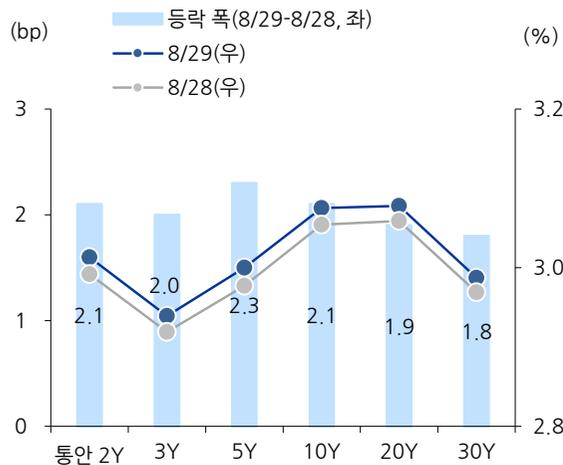
외국인 3년 국채선물(KTB) 수급



외국인 10년 국채선물(LKTB) 수급



일간 금리 등락 폭 & 커브



국내 채권시장 동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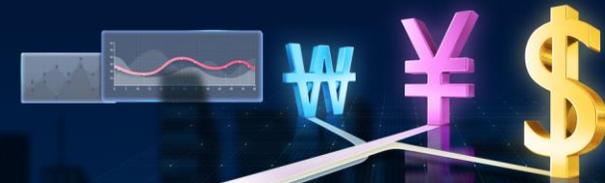
- 국내 채권시장 약세 마감. 수급 연동
- 한은 총재에 이어 윤대통령까지 부동산 가격 안정 의지를 피력. 금리 인하 기대 약화로 이어지며 외국인 국채 선물 순매도 대거 출몰
- 이날 외국인 3년 국채선물 순매도 규모는 지난 5월 이후 최대치. 국고채 10년 금리, 6월 이후 처음 전월 말 대비 상승 전환

전망 및 향후 주요 이벤트

- 미국 채권시장 약세 마감. 지표 호조 영향
- 2분기 GDP 수정치, 속보치 대비 상향 조정. 실업보험 청구자 수, 전주 대비 감소하여 예상치 하회. 견조한 지표로 빅컷 기대 감소하며 금리 상승
- 7년 만기 미국채 입찰, 무난히 마무리된 가운데 양호한 수요를 보임. 금리 영향은 미미
- 금일 미국 7월 PCE 물가, 한국 7월 산업생산, 유로존 7월 실업률, 유로존 8월 CPI 등 발표 예정

자료 출처: 연함인포맥스, Refinitiv, 유진투자증권

본 자료는 참고용 자료일 뿐이고, 특정주식에 대한 투자목적용으로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. 본 자료는 담당자가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는 자료나 정보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지만,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. 따라서 본 자료를 참고한 고객의 투자 의사 결정은 고객 자신의 판단과 책임 아래 이루어져야 하고,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존하여 행하여진 일체의 투자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을 것임을 밝힙니다. 아울러 본 자료는 당사 고객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로서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/전송/인용/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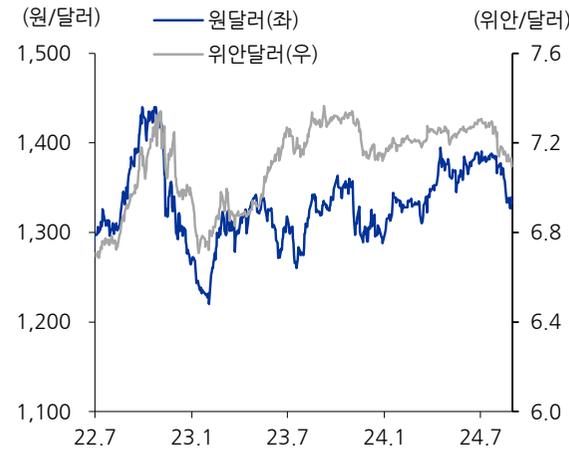


FX & Commodity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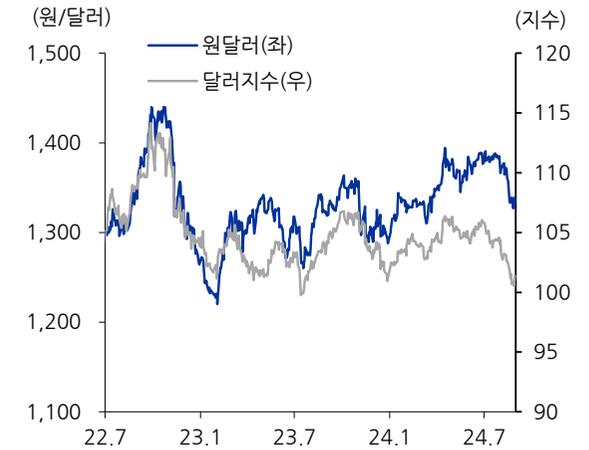
(단위: %, \$)

	8/29일	1D	1W	YTD
원/달러	1,333.20	-0.4%	-0.1%	3.5%
달러지수	101.39	0.3%	-0.1%	0.1%
달러/유로	1.108	-0.4%	-0.3%	0.3%
환율				
위안/달러(역외)	7.09	-0.5%	-0.7%	-0.4%
엔/달러	144.97	0.2%	-0.9%	2.9%
달러/파운드	1.317	-0.2%	0.6%	3.5%
헤알/달러	5.63	1.1%	0.7%	15.9%
상품				
WTI 근월물(\$)	75.91	1.9%	4.0%	5.9%
금 현물(\$)	2,521.43	0.7%	1.5%	22.2%
구리 3개월물(\$)	9,272.00	0.1%	0.1%	8.3%

원달러 환율 및 위안달러 환율 동향



원달러 환율 및 달러지수 동향



원달러 환율 및 국제유가 동향



원달러 환율 동향

- 달러-원 환율은 서울 외환시장에서 -5.80원 하락한 1,333.20원에 마감. 야간거래에서는 1,332.50원 마감.
- 간밤 달러는 소폭 강세를 보였지만 달러-원은 -1.00원 하락 출발.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실망감 속 국내 증시가 반도체 위주로 조정을 받았지만 달러-원은 개장 이후 낙폭 확대.
- 장중 위안화가 급등하면서 원화도 이에 연동되었고, 월 말 네고 물량 유입도 환율 하방 압력으로 작용.

달러 지수 동향 및 관전 포인트

- 달러 인덱스는 견조한 미국 경제지표 속 상승.
- 미국 2Q GDP는 +3.0% 증가로 상향 조정. 개인소비가 기존 추정보다 더 견고했던 것으로 나타남(+2.3% -> +2.8%). 지난주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도 23.1만 명으로 전주 대비 감소. 4주 평균으로도 둔화세가 유지.
- 견고한 미국 경제 지표 속에 미국 빅 컷 기대감은 후퇴. 증시는 높은 변동성을 보이는 와중 다우지수가 신고가를 경신했지만 나스닥이 하락하는 등 위험 선호 심리가 완전히 회복되지는 못함.
- 금일 미국 PCE 물가 및 미시간대 소비심리지수 발표 예정.